

2024.06.14.(금) 증권사리포트

실리콘투

군계일학(群鷄一鶴)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미국, 유럽에 이어 글로벌 시장 확대

실리콘투는 K-Beauty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Stylekorean.com을 통하여 전세계 약 160여개의 국가에 E-Commerce 역직구(Retail) 판매 및 기업 고객(Wholesale)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지사를 이용한 현지화 사업 및 국내 최초 AGV 물류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Retail & Wholesale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국가별 매출에서 1위 유지 중인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유럽) 매출액이 2위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인기 있는 K-Beauty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것에 기인한다. 2023년 6월에 설립한 유럽 지사 1분기 매출액은 99억원을 기록하였고, 2분기 매출액은 12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동사는 ① 베트남(하반기 본격 운영) & 러시아 법인, ② 중동시장 진출 계획을 통해 회사의 글로벌 K-Beauty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동사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율 및 판매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광고선전비율은 22년 2%에서 24년 1분기 1.1%까지 하락하였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샘플링을 통해 제품을 다양한 채널에 노출시키고 있다. 브랜드와 협력하여 특정 제품군을 주제로 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와 협력한 430여개 브랜드 중에서 조선미녀, ANUA, COSRX, 라운드랩 등 브랜드가 성장세를 보이며 실리콘투의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브랜드 협력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만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개시

실리콘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만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EPS에 목표 PER 23.5배를 적용하였다. 목표 PER은 2013~2014년(한국 화장품 수출이 대폭 증가하던 시기) 화장품 업종 평균 PER이다. 2024년 동사 매출액 예상 성장률 103.6%를 감안할 때, 타 화장품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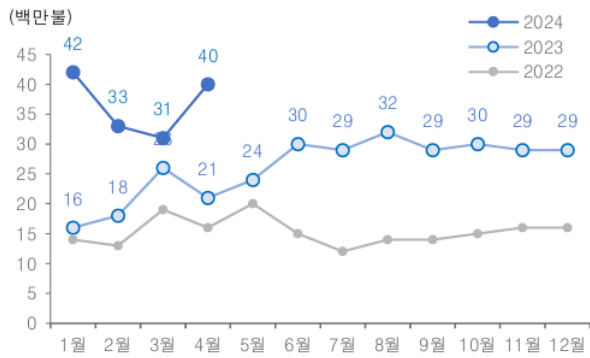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653	3,429	6,979	11,000
영업이익	142	478	1,430	2,400
지배순이익	112	380	1,160	1,931
PER	15.3	9.6	26.2	15.7
PBR	1.8	2.7	12.1	6.8
EV/EBITDA	8.7	7.7	20.8	12.4
ROE	12.2	32.9	60.1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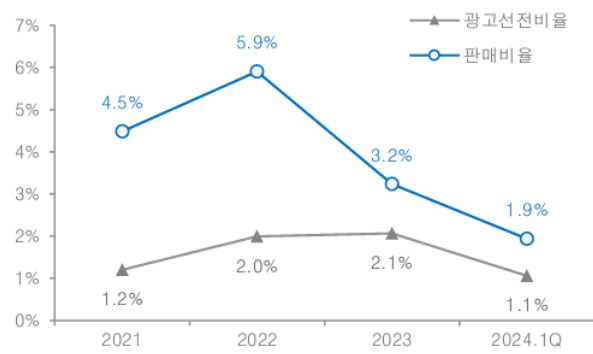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Fig. 4] 경기 성남시 화장품 (HSK 3304) 수출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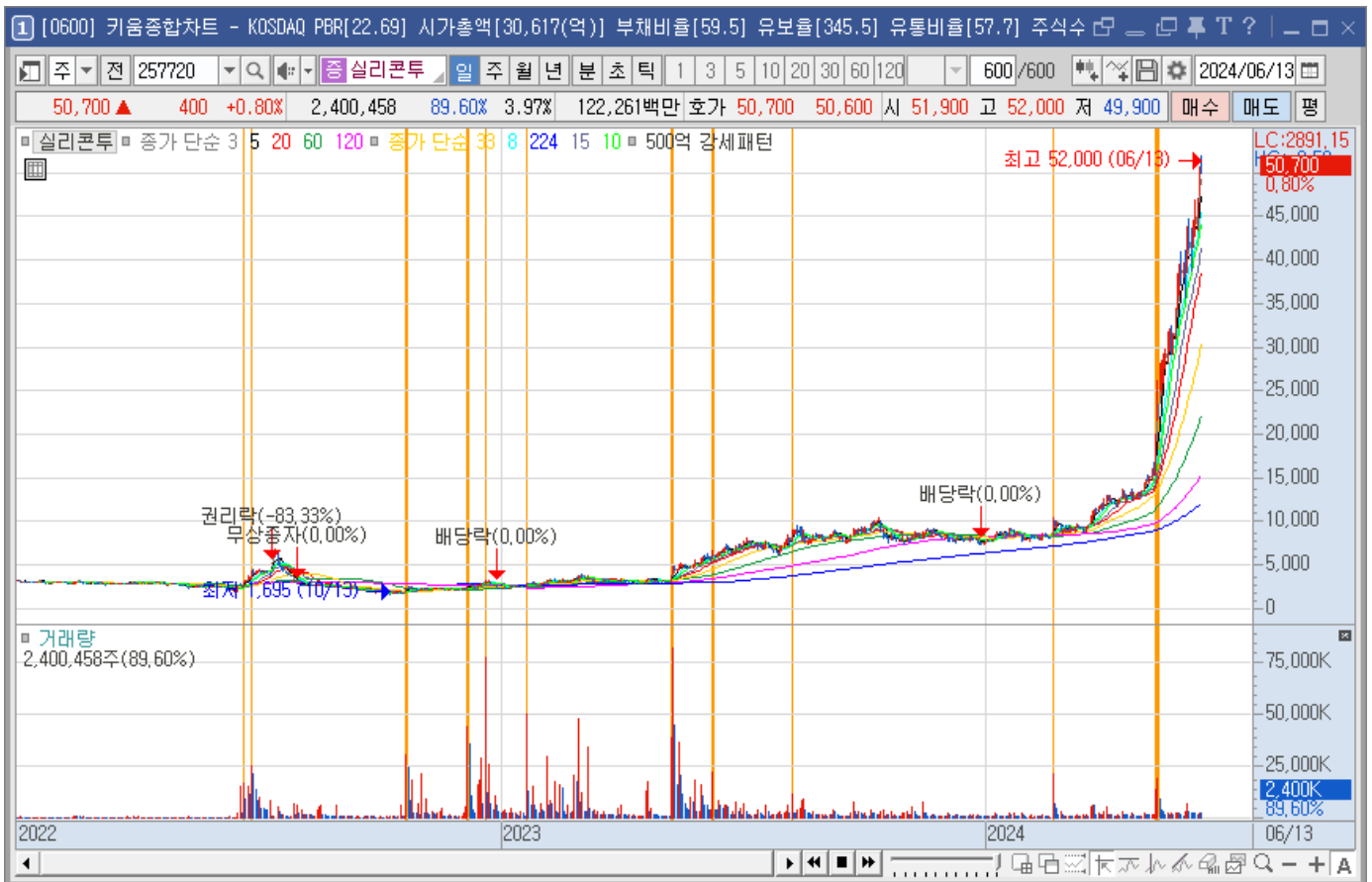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5]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율 및 판매비율



자료: DAR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토니모리
 본업과 자회사의 환상적인 콜라보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1Q24 Review: 매출액 +33.9%, 영업이익 329% YoY

24년 1분기 매출액은 418억원(+33.9% YoY), 영업이익 23억원(329% YoY)을 기록하였다. 수출과 자회사 메가코스의 활약이 전사 실적에 크게 기여하였다.

투자포인트 Big 3. MBS, 수출, 메가코스

2분기 매출액은 470억원(+29.6% YoY), 영업이익 47억원(83.7% YoY)이 예상된다.

전체 채널에서 1분기 대비 매출 고성장이 예상되는데 투자 포인트는 ① MBS(다이소, 올리브영) 신규 입점, ② 수출 유통 채널 확대, ③ 자회사 메가코스(화장품 ODM) 고성장이다.

1. MBS 신규입점: 동사는 5월 다이소 입점을 시작으로 레티놀 라인 온라인몰 품질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품 품귀 사태는 동사 소비자층 선호도를 두텁게 만든다. 또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수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421개에서 700개 매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리브영 매출액은 매 분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2분기 마케팅 활동 강화(팝업스토어 등 홍보활동)에 기인한다.

2. 수출 유통 채널 확대:

① 일본: 동사는 23년 2월 일본 5대 무역상사인 이토추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돈키호테, 잇코스 메, 도큐핸즈 등에도 입점하였다. 1분기엔 LOFT 버라이어티숍 60개 매장에 갯잇틴트 글레이즈밤이 입점하였다(매장 수 확대 협의 중). 3분기에는 드럭스토어 웰시아(Welcia) 600개 매장에 모찌 토너가 입점 예정이다.

② 미국: 캐릭터 브랜드 콜라보 제품 선적이 시작되었다. 9월 신학기를 타겟으로 미국 얼타, 타켓에 동시 입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자회사 메가코스 고성장: 주요 자회사 메가코스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고성장이 기대된다. 매출액 160억원(+77% YoY), 영업이익 15억원(+400% YoY, OPM 9.4%)이 전망된다. 모회사 토니모리를 비롯한 대형 고객사 수주 증가에 따른 고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메가코스 기초 라인은 Full CAPA에 도달한 상황으로 포장 자동화, 기초 화장품 라인 증설, 주요 고객사 라인 증설을 통한 단계적 CAPA 증설 계획이다.

4. 자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 2021토니브릿지투자조합 및 2022토니브릿지투자조합에서 투자한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6월 상장 예정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267	1,511	1,938	2,300
영업이익	-73	96	188	250
지배순이익	-1	37	149	203
PER	-1,284.9	31.4	20.9	15.4
PBR	1.1	1.2	2.9	2.4
EV/EBITDA	921.1	10.4	14.2	11.1
ROE	-0.1	4.0	14.7	17.2

자료: 유안타증권

[Fig. 4] 올리브영 인기 화장품 순위

분류	스킨케어	타스크케어	공명물	손케어	헤어케어
내장	피부소독	타로 고스메틱	핸드케어	항수리타피	헤어케어
외단화	인상치음	무드	구강용품	발스/인양용품	여성/양용품
장모트케어	리빙컷	유리샴푸			

자료: 올리브영,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5] 다이소 토니모리 화장품

제품명	가격
BEST 본셀 레티놀 2500 IU 링클샴 퍼팩터 15 ml	5,000원
BEST 본셀 레티놀 500 IU 세럼 30 ml	5,000원
BEST 본셀 레티놀 아이크림 25 ml	3,000원
BEST 본셀 레티놀 500 IU 크림 50 ml	5,000원

자료: 다이소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범한퓨얼셀

외형 회복 사이클 진입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잠수함용 연료전지 발주 재개, 건물용 연료전지 매출 증가에 주목

동사는 잠수함용, 건물용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건설 사업영위. PEMFC(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방식의 연료전지 제작하며,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와 액화수소충전소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

지난 3월, 발주가 지연되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연료전지 수주(286억원)에 성공하여, 잠수함용 연료전지 매출액 회복 예상. 해외기업의 연료전지가 투입된 장보고2 연료전지 국산화 시도도 진행 중이며, 25년 신규 수주를 예상

건물용 연료전지 판매 확대 시도. 23년 건물용 연료전지 매출액은 57억원이었으나, 24년 연간 매출액은 100억원 상회 예상. 시장 규모는 연 1,000억원 수준. PEMFC 연료전지의 경우, SOFC 대비 한계가 있으나, 건물 및 데이터센터의 백업 발전원으로 판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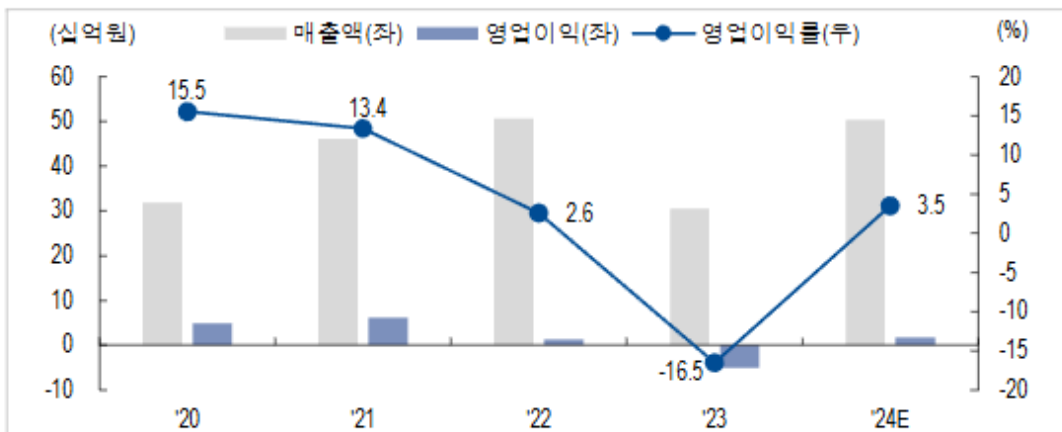
기존 수소충전소 수익성 악화, 하반기 액화수소충전소 수주가 중요

기체 수소충전소는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 환경부는 30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 280기 이상 설치를 목표, SK E&S, 효성중공업의 신규 액화수소플랜트 가동으로 액화수소 보급도 용이해질 전망. 액화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술 장벽이 높아서, 경쟁 강도는 제한적일 전망. 동사의 경우, 스미토모와 MOU를 체결하여, 초고압 액체수소공급 펌프 확보 가능. 하반기 신규 수주를 기대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46.1	50.7	30.5	50.4
증감률	44.4	10.0	-39.8	65.0
영업이익	6.2	1.3	-5.0	1.8
증감률	24.4	-78.8	적전	흑전
영업이익률	13.4	2.6	-16.5	3.5
(지배지분)순이익	3.3	2.3	-2.2	1.1
EPS	617.3	289.6	-255.8	129.5
증감률	-16.1	-53.1	적전	흑전
PER	0.0	90.1	N/A	171.1
PBR	0.0	2.1	1.7	1.8
EV/EBITDA	-1.8	62.9	N/A	18.1
ROE	72.1	3.4	-2.1	1.1
부채비율	127.2	21.9	16.5	98.4
순차입금	-12.4	-71.4	-44.1	56.3

단위: 십억원, %, 원, 배

범한퓨얼셀 연간 매출,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범한퓨얼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딥노이드

하반기 의료 AI 및 딥팩토리 수주 모멘텀 기대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2025년 의료AI 본격 실적 성장 기대

딥노이드는 지난 4월 뇌동맥류 검출 진단 AI 솔루션 '딥뉴로(DEEP:NEURO)'에 대한 비급여 수가를 책정 받았다. 이에 따라 뇌 MRA 검사 시 딥뉴로로 뇌동맥류 검출 보조를 받으면 딥노이드는 건당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1월 혁신의료기술 지정된 이후 유의미한 성과다. 현재 국내 약 20개 병원에 도입을 마친 상황으로, 연말까지 80개 병원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내 대형 검진센터 향 의료 AI 솔루션 납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검진시장은 약 6조원 규모이며, 영상 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검진 외주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의료 AI 솔루션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올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이 전망된다. 2023년 기준 동남아시아 의료 진단 AI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이이며, 국내 시장 대비 보험 수가는 최소 3배 이상이다. FDA 및 CE인증 없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미국 시장 대비 진입장벽이 낮고, 선점 효과를 감안하면 큰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2분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주요 병원 및 의료 기관과 MOU를 체결하며 의료 AI 솔루션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국내 및 글로벌 의료 AI 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 AI 실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딥팩토리 및 딥시큐리티 해외 매출 본격화 기대

딥노이드의 산업 AI 솔루션(딥팩토리 및 딥시큐리티)도 순항 중이다. ①작년 4분기 수주한 75억원 규모의 2차전지 고객사 향 딥팩토리 매출이 올해 2분기부터 인식될 전망이다. 전사 분기 BEP 매출액 40억원을 감안하면 3분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2차전지 공정에서 배터리 안정성 및 생산 자동화 중요성이 부각돼 머신비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머신비전 업체 코그넥스의 1분기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2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 내 머신비전 수요 증가가 지속되며, 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실적이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머신비전 적용처 확대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며, 하반기 2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업체 향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②동사는 한국공항공사 및 김포공항 등의 공공기관과 국내 대기업에 보안 AI 솔루션 딥시큐리티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한 바 있다. 글로벌 보안 업체와 동남아 항공보안 시장에 딥시큐리티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하반기 본격적인 해외 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2024년 실적 턴어라운드, 2025년 영업이익 100억원 전망

2024년 매출액 163억원, 영업이익 14억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주요 건강검진센터 향 의료 AI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공급이 기대되는 만큼, 2025년은 의료 AI 사업 확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실적은 매출액 311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으로 예상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	1	3	2
영업이익	(5)	(8)	(6)	(7)
세전이익	(14)	(9)	(5)	(7)
순이익	(14)	(9)	(5)	(7)
EPS	(801)	(470)	(268)	(332)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18.9)	(10.3)	(32.5)
PBR	0.0	12.8	5.5	8.8
EV/EBITDA	0.0	0.0	0.0	0.0
ROE	597.5	(64.4)	(53.5)	(24.8)
BPS	(125)	692	501	1,223
DPS	0	0	0	0





디아이티

레이저 장비의 성장을 기대

[출처] 하나증권 김민경 애널리스트

1Q24 Review: 레이저 솔루션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

디아이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용 검사장비(AOI)와 반도체용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 연결기준 24년 1분기 매출은 202억원(YoY -16%, QoQ -43%), 영업이익은 33억원(YoY 흑전, QoQ -43%)을 기록. AOI 솔루션, 레이저 솔루션, 기타 매출이 각각 59억원, 126억원, 16억원으로 AOI 솔루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 레이저 솔루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845% 증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레이저 솔루션 매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 23년부터 반도체 고객사향으로 본격적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고객사 확대 및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024 Preview: 반도체 장비 매출 성장의 원년

디아이티의 24년 매출은 전년대비 4% 감소한 1,02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7% 성장한 196억원을 기록할 전망. AOI 솔루션, 레이저 솔루션, 기타 매출을 각각 313억원, 593억원, 122억원으로 추정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디스플레이향 AOI 장비 매출은 감소하지만 반도체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예상. AOI 장비 대비 마진이 높은 레이저 장비의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 DRAM 미세화 및 NAND 고단화가 이루어지며 레이저 어닐링 공정 도입이 증가. 특히 300단대 이상의 NAND에서는 레이저 어닐링 공정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고객사가 점차 확대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메모리 반도체의 레이저 어닐링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메모리 반도체에서 레이저 어닐링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선단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Warp(뒤틀림), Dislocation(단층) 현상이 증가하게 되는데 레이저 어닐링은 [1]

웨이퍼의 특정 부분에만 열처리가 가능하고, [2]레이저에 노출되는 시간과 세기를 조절 가능하고, [3]원치 않는 확산(TED, Transient Enhanced Diffusion)을 제어 가능해 얇은 contact junction을 형성하는데 유리하기 때문 특히 NAND의 Tech migration으로 단 수가 증가하면서 웨이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에 디아이티 또한 25년부터 DRAM 뿐 아니라 NAND향으로도 레이저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19	29	76	133	
영업이익	13	(2)	(6)	6	
세전이익	15	(4)	(4)	12	
순이익	13	1	(1)	9	
EPS	697	78	(77)	490	
증감율	54.5	(88.8)	적전	흑전	
PER	12.1	123.3	(121.6)	10.9	
PBR	0.9	1.0	1.0	0.6	
EV/EBITDA	2.4	0.0	0.0	0.0	
ROE	7.6	0.9	(0.9)	5.2	
BPS	9,327	9,228	9,157	9,646	
DPS	200	0	0	300	





텔레칩스

돌고래의 잠영이 너무 깊다

[출처] SK증권 박제민 애널리스트

기업개요

자동차용 팹리스 기업이다. 티어 1(현대모비스 등) 업체를 거쳐 비포어 업체에 65%, 애프터에 35%가 납품된다. 현대기아차향 매출 비중이 70% 수준이다. 차량용 칩 중 미드~엔트리 라인 반도체를 생산한다. 퀄컴, 엔비디아에서 최선단 칩들을 high end 차량 플랫폼에 납품하는 중이며 동사의 경우 2~30% 수준의 가격에서 mass 시장 물량을 대응 중이다. 현대기아차향 실적 증가 및 추가 고객사 확보 기대감으로 작년 주가가 상승한 이후 매출 실현 시기가 기대치보다 늦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산업 고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사업인만큼 제품 라인업 증가와 고객사 추가 확보에 따른 꾸준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관전포인트

고도화되는 차량용 반도체, 준비된 텔레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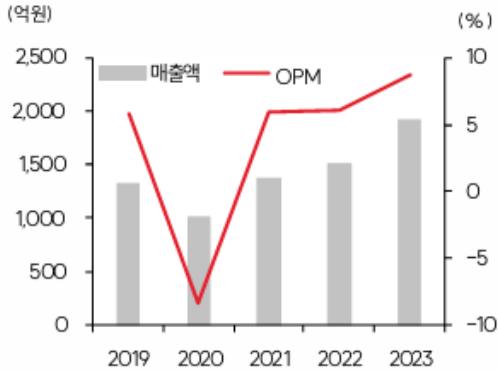
향후 개발 로드맵으로 Dolphin 시리즈(IVI+ADAS), 게이트웨이칩(SDV), N 돌핀(ADAS), A2X(NPU), MCU 통합칩을 개발 중이다. 종합 HPC 용 SoC 까지 공략하는 계획이다. 주력 제품으로 현재 납품되는 돌핀 라인업이 심화되면서 ASP 증가가 기대된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 수는 200~300 개이지만 자율주행차(Lv.3 이상)는 최대 2,000개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NXP를 포함한 미국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중장기 성장률을 10% 수준으로 전망 중이다. 현재 감지되는 ADAS, 인포테인먼트 발달이 하이엔드 차량 위주라면, mass 차량으로 확장이 지속되면서 텔레칩스의 수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Tier 1 고객사 확보, 다음 확장도 기대된다

작년 말 콘티넨탈과 돌핀 3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콘티넨탈의 HPC 에 적용되어 콘티넨탈의 고객사 완성차 제조사들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매출 실현은 2025년 말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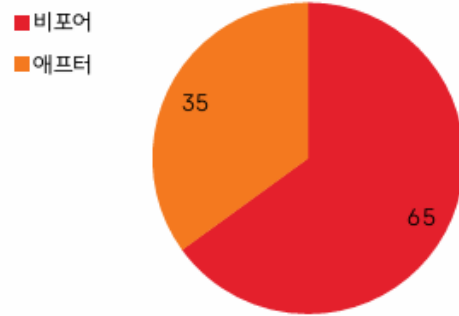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차량 플랫폼에 따른 비용, 성능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최종 고객사들과 접점이 생기는 Tier 1의 확보는 시장 영향력 확보에 의미가 크다. 단일 고객사로서 주요 고객사 중 2번째 수준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ASP도 이전 돌핀+ 모델 대비 50%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사 확보로 점진적으로 차량용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향으로 이륜차 시장 개화도 주목할만하다. 현재 매출액에서 5% 수준으로 추정되나 동일한 마더 칩 내에서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오는 중이다

매출액 및 OP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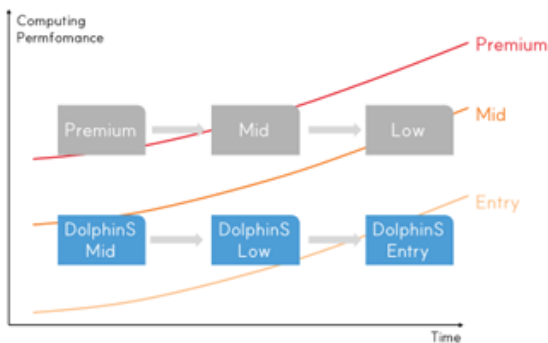
자료: 텔레칩스, SK 증권

2023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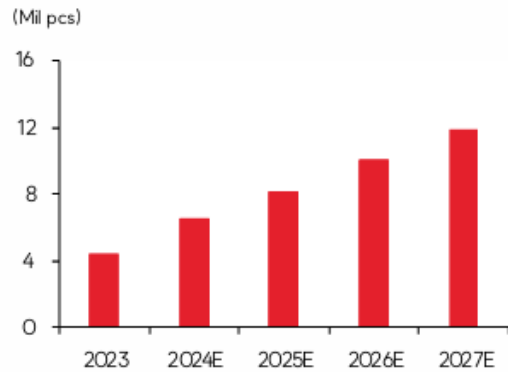
자료: 텔레칩스, SK 증권

차량용 반도체 IHS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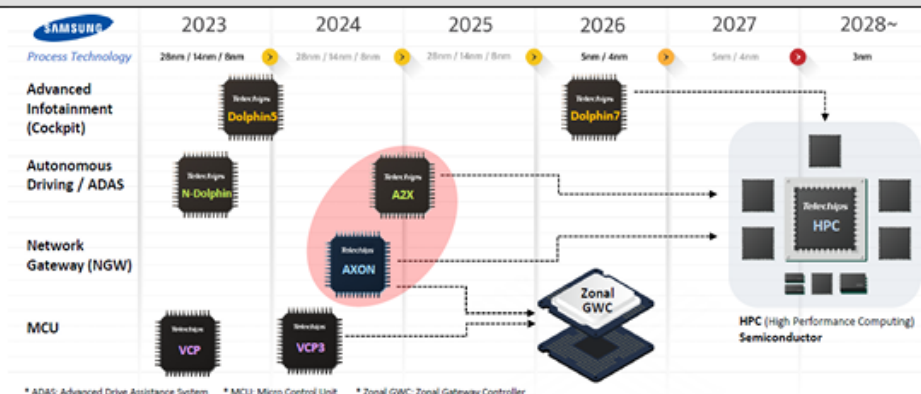
자료: 텔레칩스, SK 증권

엔트리-미드 레벨 반도체 탑재량 전망



자료: IHSMarkit, 텔레칩스, SK 증권

텔레칩스 개발 전망



자료: 텔레칩스, SK 증권



비스토스

실적 반등,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

[출처] SK증권 나승두 애널리스트

1Q24 흑자전환 성공

비스토스는 태아 및 신생아 관련 의료기기 전문 업체다. 현재는 유축기 체온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와 환자감시장치 등의 의료기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DHD 및 치매 치료 등 뇌 관련 의료기기 분야로의 진출도 계획 중이다. 올해 1분기 매출액 58억원(YoY +11.6%), 영업이익 3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의 서막을 알렸다. 상대적으로 1분기는 비수기에 해당되지만, 미국 지역에서의 유축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견인했다.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성장, 환율 흐름도 우호적

비스토스는 해외 120여개국 이상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중심 기업이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동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가정용 의료기기 등의 수요 증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을 가장 먼저 자극했고, 현재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들에 대한 활용이 익숙해지는 상황이다. 전문용 의료기기와 더불어 가정용 제품까지 모두 다루며 유연한 시장 대응력을 보여주는 동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높은 환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환율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YoY 실적 증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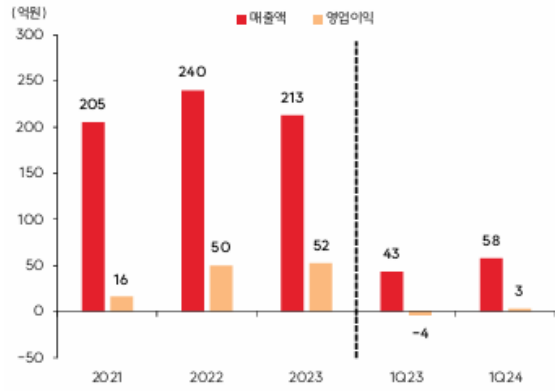
하반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기대

올해 하반기에는 ADHD 치료기기의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용 허가는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 FDA 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수출용 허가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샘플 매출이 발생 중인데, FDA 승인 이후에는 기존 판매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기대된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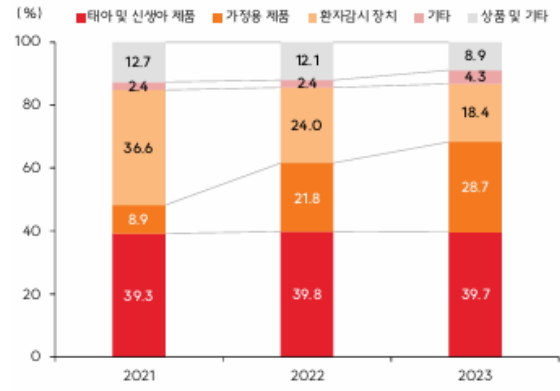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억원	116	180	205	240	213
영업이익	억원	4	10	16	9	3
순이익(지배주주)	억원	3	17	19	-45	8
EPS(계속사업)	원	32	90	88	-213	36
PER	배	0.0	0.0	0.0	N/A	60.9
PBR	배	0.0	0.0	0.0	3.4	3.0
EV/EBITDA	배	8.2	1.3	2.6	-4.2	-7.9
ROE	%	32.8	50.9	30.9	-38.9	4.7

비스토스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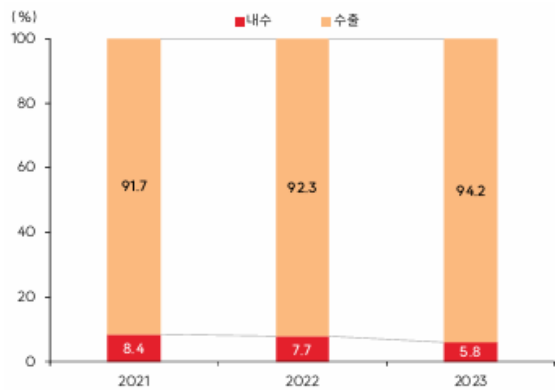
자료: 비스토스, SK 증권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비스토스, SK 증권

내수/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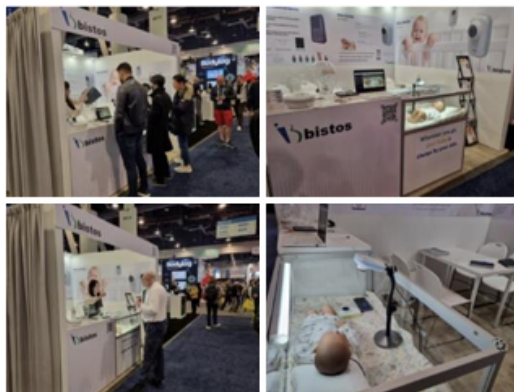
자료: 비스토스, SK 증권

신제품 인증 예정 시기

구분	국내	CE	FDA
BT-380	인증완료	24년 11월	-
BT-450	인증완료	24년 11월	인증완료
BT-740, 770, 780	인증완료	인증완료	24년 12월
BT-650	24년	-	-
BT-700	24년 5월	-	-
BT-580	24년	-	-
BT-580AI	24년	-	-
BT-1000	-	-	24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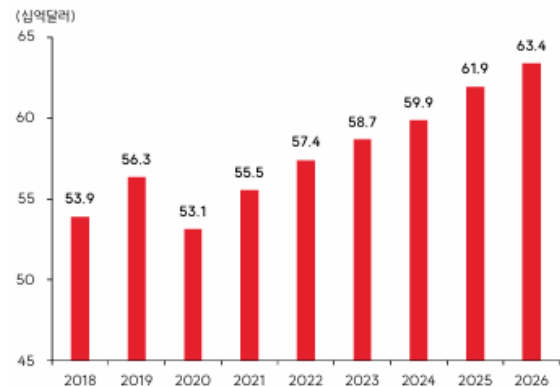
자료: 비스토스, SK 증권

CES 2024 에 참가했던 비스토스



자료: 비스토스, SK 증권

미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IBIS, KOTRA, SK 증권

